

# MARU

Interior, Lifestyle Design [www.dinnell.co.kr](http://www.dinnell.co.kr)

SPECIAL ISSUE | 10 Designers, Creative Green

FOCUS | The Baupiloten

OVERSEAS INTERIOR | Design Spirits

INTERIORS | Studio Ippolito Fleitz Group · Bastard Store · Dumare · Raon  
Vikings Maison · Dogma Boutique · Pediatric Clinic Angel

LANDSCAPE & URBAN | Gwanghwamun Square  
GwangJinGyo & Observatory

vol. 90





# Studio Ippolito Fleitz Group

스튜디오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루페 \_ 컬러와 패턴으로 감성을 공유하다

Design Ippolito Fleitz Group Use Office Location Stuttgart Germany Furniture Dark Wood, White Wood, Textile Bands Photo Zoëy Braun

디자인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루페 용도 사무실 위치 독일 슈투트가르트 가구 다크 우드, 화이트 우드, 텍스타일 밴드

1	2
---	---

1. This colorful textile bands hanging from the ceiling to the desk; they are light switches for each desk.

2. Main Office Space

1. 컬러와 화이트로 마감된 공간에 화려함을 더하는 밴드들은 공간을 장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책상 위 조명의 스위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공간을 분리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2. 메인 업무공간





1 2  
3 4

1-4. Two long work desks cultivate a creative and communicative atmosphere. Shelving and furniture are executed in white or dark wood.

1,2. 공간 중심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긴 테이블이 놓여진 열린 공간은 대화와 소통을 유도한다.  
3,4. 직사각형의 단순화된 가구, 열린 공간, 블랙과 화이트의 통일된 컬러감은 기능성 공간인 사무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다. 이러한 단순함 위에 화려한 패턴을 입히고, 다양한 컬러의 밴드를 통해 시각적인 강렬함이 더해진다.

This colorful textile bands hanging from the ceiling to the desk: they are light switches for each desk. The room with the white cloud of lamps is a conference room as well as the room with the big black lamp. The second is the smaller one. The images at the wall there are pictures of our projects(The images installed on the wall are pictures of our projects).

Two long work desks cultivate a creative and communicative atmosphere. Shelving and furniture are executed in white or dark wood. Contrasting accents of colour are set by textile bands above the workplaces that serve as light switches, and the areas of green plants. In addition to two conference rooms, cheerful communication islands are available for discussions. The studio with spacious kitchen and oversized mirror is a place of both inspiration and relaxation.





1-3. Conference Room

1~3. 회의실

디자이너의 작업공간은 그들을 대변하는 하나의 도구이자 언어이다. 디자이너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첫자리이기에 공간에서 풍겨지는 색은 곧 그들의 색이기도 하다.

독일에서 활동하는 이폴리토 플라이츠 그룹의 새로운 작업공간인 이곳은 화려한 듯 보이지만 단순함이 묻어난다. 시각적인 강렬함과 실용적인 기능성이라는 필수불가결한 두 요소를 한 공간에 담기 위해 구성을 단순화 시켜 기능을 강조하고 화려한 색을 덧입혔다. 메인 작업실과 회의실, 스튜디오로 구성된 내부는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한 컬러로 통일되어 있다. 직사각형과 원의 형태로 단순화된 가구, 열린 공간, 통일된 컬러는 기능성을 극대화시킨다. 공간 중심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긴 테이블은 공간의 중심축으로 자리하며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대화와 소통을 유도한다. 이러한 단순한 구성 위에 화려한 패턴이 입혀지고, 그 위로 떨어지는 다양한 컬러의 밴드를 통해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였다. 천장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패턴화된 밴드는 단순히 공간을 장식하기 위함이 아닌 책상 위 조명의 스위치로 기능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1. Main Office Space  
2. Conference Room

Floor Plan





1 2  
3 4

1-3. Conference Room  
4. The images at the wall there are pictures of Ippolito Fleitz group's projects

1-3. 회의실  
4.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벽에 걸어볼 땐서 이곳에 들어서면 아들에게 보다 강한 아이덴티티를 부각시켜준다.

공간의 또 다른 이야기는 공간에 부여된 색이다. 메인 작업실을 지나 자리하는 회의실과 스튜디오는 통일된 하나의 컬러감으로 자신만의 색을 갖는다. 화이트 컬러로 마감된 내부를 더욱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이트 톤의 조명, 블랙 컬러로 마감된 내부에는 이를 강조하는 블랙 조명등을 들어서서 각 공간만의 특색을 강조하였다. 하얀 벽면에 새겨진 블랙의 패턴, 공간 전체를 감싸는 듯한 대형화된 조명들이 공간감을 더한다. 단순함과 화려함, 단색과 컬러의 조화, 통일과 대비 등 다양한 이야기 거리들을 통해 자신들의 감성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

취재 명선이 기자 사진 조이 브라운

